



KOWIN DC 신수경 신임 회장 인사말



친애하는 KOWIN DC 회원 여러분께,

안녕하세요? 미흡한 저를 KOWIN DC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회장으로 초대해 주신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2년 임기 동안 열심히 KOWIN DC 를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김영기 전회장의 뒤를 이어

회장직을 맡게 된 것은 저의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KOWIN DC에 대한 저의 비전은 과거 KOWIN DC 회장님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주요 활동으로 일년에 네 차례의 정기총회를 열고, 차세대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리더십 세미나를 개최할 뿐만 아니라 향상된 네트워킹과 멤버들끼리의 친목과 우정을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계속 수행 할 것입니다.

그동안 성공적으로 KOWIN DC 의 격을 높이고 KOWIN DC 를 위해 열정적으로 애쓰신 손목자, 김광자, 남명호, 김영기 전 회장님들께 우선 감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회장님들의 리더십과 여러 회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으로 우리 KOWIN DC는 이 지역 한인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워싱턴 DC 지역 사회에서도 존경 받는 단체로 발전해 왔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 할 수 있게끔 회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KOWIN DC 가 우리 회원들이 함께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헛바퀴같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생활에서 잠깐이라도 벗어나 회원들끼리의 교류와 돈독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싶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딸이라는 이 공통점 하나만으로도 서로를 격려해 줄 수 있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2015년 6월에 회장으로 취임한 후 그동안 정기총회 모임 (8월 16일, 11월 5일)을 두차례 가졌으며 여성가족부 주최로 경상남도 통영에서 열린 국제 KOWIN 컨벤션 대회 (8월 25일 - 28일) 에선 워싱턴 지부 회원들이 여러 명 참가해 빛을 냈으며, 또한 차세대 양성을 위한 KOWIN DC 리더십 세미나 (11월 14일)도 성공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이 모든 행사들에 관한 내용은 이번 뉴스 레터에서 더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문위원회를 강화해 재편한 KOWIN DC 임원진 및 위원회 명단도 연락처와 함께 실었으니 관심분야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서슴지 말고 각 위원회 위원장에게 연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KOWIN DC 는 우리 모두의 단체이자 또 귀하의 단체란 걸 잊지 마십시오. 바쁜 삶 중에서도 우리가 합심해서 노력하면 더 나은 단체로 개선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의 명언을 잠시 빌리자면 "KOWIN DC 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KOWIN 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가 뜻을 같이 한다면 KOWIN DC 는 앞으로 더욱 더 강화된 단체로 발전할 것입니다.

KOWIN DC 자매님들이 모두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OWIN DC 회장 신수경 드림

제 10 호 뉴스레터 목차

- 회장 인사말
- 2015년 제 3차 정기회의
- 2015년 제 4차 정기회의
- 제 15회 2015 국제 KOWIN 통영 컨퍼런스
- 제 6회 KOWIN DC 리더십 세미나
- 회원 뉴스
- KOWIN DC 지부 임원진 및 위원회 명단

발행인 신수경 KOWIN DC 회장

편집장 박숙자, 강윤경 출판위원회 공동위원장

편집 보조 김소연 KOWIN DC 펠로우



2015년 제 3차 정기회의

2015년 8월 16일



2015년 제 3차 정기회의는 회원 32 명이 참석한 가운데 새롭게 선출된 KOWIN DC 회장 신수경씨 댁에서 열렸다. 신수경 회장이 음식과 음료수를 본인 부담으로 준비하였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기존 멤버와 새로운 멤버들이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알게 된 좋은 시간을 가졌다.

신수경 회장은 KOWIN DC 회원들에게 자신을 믿고 회장으로 선출해준 것에 감사히 생각한다며 많은 업적을 남긴 김영기 전 회장을 이어 회장직에 오른 것이 행운이라고 말했다. 인사말에 이어 이번 새로이 개편된 임원단과 위원회 멤버들의 명단을 발표하며 각 위원회 위원장이 업무를 진행할 때 효율적이고 옳은 결정을 내리도록 그들을 믿고 격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기존 년회비를 \$100 에서 \$120 로 올리되 늦게 등록하는 멤버의 경우 다음 해가 되기 전까지 한 달에 \$10 씩 계산하여 내도록 제안하였으며 회원들이 의논후 투표로 가결하였다. 새로운 멤버의 가입비는 이전과 같이 \$300 이다.

기금 모으기 위원회는 KOWIN DC 가 앞으로 충분한 모금을 모아 번거로이 모임 때마다 등록비를 받지 않고 또한 리더쉽 세미나와 KOWIN 펠로우에 필요한 금액을 충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어 앞으로 다가올 행사에 대해 대화가 진행되었다. 올 봄 5월 KOWINNER 컨벤션에서 연회/갈라를 이미 가졌으므로 올해는 연말 갈라가 없다. 또한 8월 통영에서 '세계국제여성포럼'이란

제목으로 열릴 국제 KOWIN 컨벤션에 참석하는 KOWIN DC 회원들을 소개했다. 신수경 회장은 양성평등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패널의 멤버로 나가며 최애경씨는 70 년동안의 한인동포여성의 삶에 대해서 토론하는 패널멤버로 나간다.

또한 이번 11 월에 열리는 리더쉽 세미나에 대해 대화가 오갔다. 남명호 전 회장, 김영기 전 회장, Judi Alloway, 정강은씨는 이번 세미나 준비에 있어 여성가족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데에 큰 역할을 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남명호와 김지수씨가 행사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모금활동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정희씨는 5 월 KOWINNER 컨벤션때 진행된 경매에 대해 보고하면서 앞으로 있을 경매에서는 물건이 기부자가 원하는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팔리지 않기를 원하면 최소의 입찰가격을 매겨 줄 것을 부탁하였다. 멤버들의 기부 시, KOWIN DC 는 세금신고에 필요한 감사편지를 발급할 것이다.

회의 마지막 순서로 신수경 회장은 "Introduction to Greece 101"이란 제목으로 신회장의 그리스 문화에 대한 체험과 지식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최근 딸의 결혼식으로 그리스에 다녀온 신수경 회장은 그리스에 현재 경제적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좋은 날씨와 음식을 즐기는 여유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고 한국과 그리스 문화 사이에 놀라울 정도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한다고 하였다.

2015년 제 4차 정기회의

2015년 11월 5일





올해 마지막 KOWIN DC 정기회의는 21명의 참석자가 함께한 가운데 우래옥에서 열렸다.

첫 순서로 8월 25-28일에 통영에서 열린 국제 KOWIN 컨벤션에 참석한 멤버들의 경험 보고가 있었다. 이번 컨벤션에는 신수경 회장, 헬렌 원, 남명호 전 회장, 최애경, 송경민, 안 켈리, 김홍자, 전 코윈 펠로우 에밀리 등 총 8명이 참석하였다. 남명호씨는 참석했던 멤버들 모두 KOWIN DC를 잘 대표하였다고 알리며 내년엔 있을 컨벤션에는 다른 회원들도 참석해 좋은 경험을 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번에 국제 KOWIN 컨벤션에 처음으로 참석했던 장혜숙 (앤 켈리) 회원은 이번 행사를 통해 귀한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컨벤션 기간 동안 많은 뉴스기자들 (조선, KBS 라디오, 매일신문 등)과 그녀의 커리어 스토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느라 바쁜 일정을 보냈다고 했다.

이어 남명호씨와 김지수 세미나 공동위원장은 11월 14일에 열린 리더쉽 세미나의 진행과정에 대해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전보다 두 배나 많은 멘토들을 구하는 것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세미나 준비위원회 멤버 모두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세대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는 뜻 깊은 행사인 만큼 당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줄 것을 당부했으며 행사 일정 홍보와 협력도 부탁하였다.

다음으로 앞으로 다가올 행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누어졌다. 올해 5월에 열린 KOWINNER 컨벤션 행사가 열린 관계로 연말 연회가 없는 대신 내년 구정을 즈음해 연회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아직 날짜는 미정이다. 또한 내년엔 있을 회원 연수회 날짜에 대해서는 장소를 싸게 빌릴 수 있는 시기와 회원들의 참가 가능 숫자를 고려해서 정하기로 했다.

모금활동 공동위원장으로 있는 이정희씨와 헬렌 원씨는 가까운 장래에 입찰식 경매 행사를 준비하겠다고 했다. 장소와 날짜는 곧 발표될 예정이며 경매에서는 멤버들의 중고 물품이나 쓰지 않은 새 물건들을 위탁 판매해서 세일가격의 30퍼센트를 KOWIN DC에 기부하는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마지막 순서로 이번 정기회의의 특별 강연자로 선 이수연씨는 여성들의 유방암 자가 진단법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수연씨는 이전 페어팩스 카운티 보건부에서 커뮤니티 보건

전문가로 일했고 현재는 매릴랜드대학 공공보건과에서 운영하는 Support Program for Korean Breast Cancer Survivors 프로그램 코디네이터로 일한다. 현재 미국에서 8명의 여성 중 한 명 꼴로 유방암이 발생하며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여성이 걸리는 발생 1위 암이 유방암이라고 한다. 다른 암에 비해 유방암은 생존율이 높지만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여성들이 매 2년마다 유방암 검진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으며 메모그램이 유방조직이 두꺼운 여성의 경우 정확히 진단을 못할 수도 있기에 무엇보다 본인 스스로가 주기적으로 자가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제 15 회 2015 KOWIN 통영 컨퍼런스

2015년 8월 25일 -28일

신수경 작성



8월 25일부터 8월 28일까지 경상남도의 아름다운 항만 도시 통영의 금호통영 마리나리조트에서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제 15 회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WIN) 국제 컨벤션이 개최됐다. 참가자의 수는 약 600 명이었으며 그 중 250 명이 33개국에서 온 외국인 참가자였다. 워싱턴 DC 지부 참석자는 신수경 회장을 비롯하여 남명호 (전 미동부지역담당관), 최애경, 김인아 (에밀리 케슬), 김홍자, 김경민, 헬렌 원, 장혜숙 (앤 켈리)였다.

8월 26일에는 컨벤션 참가자들이 '광복 70년'을 기념하고 전세계 미래 여성 리더들에게 통영을 소개하는 특별 영상을 감상하였다. KOWIN DC 지부 회원 참가자들은 신수경 회장이 토론자가 된 양성평등을 주제로 한 포럼을 포함하여 5개 주제



중 하나의 주제를 선택해서 글로벌 여성리더포럼에 참석했다. 우리 KOWIN DC 회원들은 컨벤션 행사 여러 부문에서 빛을 내었다. 특히 남명호, 최애경, 김경민 회원들은 패널멤버로서 또는 토론 요약 발표자로 다양한 토론 주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세미나회의에 참여하며 활약 했다. 특히 장혜숙 (앤 젤리) 회원은 경력단절 여성으로서의 어려움을 딛고 성공한 사례로 크게 주목을 받았다.

다음날 아침 참가자들은 다른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KOWIN) 여성 리더들과 교류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또한 대한민국 정부에 여러 정책과제를 건의하기 위한 토론이 있었다. 그날 오후엔 통영 역사문화 코스와 미륵도 코스중 하나를 골라 여행 할 수 있는 선택관광이 마련 되었다.

여성가족부 장관, 국무총리, 경상남도 도지사, 통영시장의 환영사와 축사로 시작된 이번 제 15 회 국제 KOWIN 컨벤션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으며 아름다운 통영에서 국제여성 지도자들과 친목을 도모하며 네트워크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또한 KOWIN DC 참가자들과도 컨퍼런스 기간 동안 서로 돈독한 우정을 쌓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워싱턴에 같이 살면서도 서로 모두 바쁜 탓에 이렇게 함께 며칠을 보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에게겐 더욱 더 값진 시간이 되었다. 다음은 우리 참가자들의 경험담이다.

김인아: 통영 국제 컨벤션은 제가 겪었던 가장 독특한 경험 중 하나였다. 저는 통영에 있는 동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이집트•일본•러시아•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에서 온 여성 리더들을 만났다. 우리는 각국의 한인 커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대한민국 정부가 각 나라의 한인 커뮤니티를 어떻게 지원하면 좋을지에 대해 토의했다. 여성 리더들이 어떻게 각 나라에 가게 되었는지를 듣거나 각기 다른 그들의 한국어 실력과 그들의 사투리를 접하게 된 것, 그리고 멤버 개개인이 독특한 한국 문화를 간직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은 흥미로웠다. 지난해 KOWIN DC 펠로우로서 KOWIN DC 멤버들과 유대를 강화하였고, 나아가 전 세계의 KOWIN 멤버들과도 소중한 관계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제게 큰 축복이었다.

송경민: KOWIN 에 8월 초에 가입한 후 예정에 없었던 통영 컨벤션에 참석하게 되었다. 사실은 아는 사람이 없어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하였지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고 자랑스러운 한국

여성이 전 세계에서 활약하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삼 일을 보냈다. 특히 여성독립운동가에 대한 세션이 인상깊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통영에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었는데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만끽할 수 있어 좋았다.

장혜숙 (앤 젤리): 2015 년 KOWIN 모임이 열렸던 통영에 처음으로 다녀왔다. 나는 이 행사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았으며 소통의 의미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개인적으로는 아주 좋은 경험을 했다. 먼저 이 기회를 통해 5 회 KOWINNER 그리고 KOWIN DC 회원께 감사 드리고 싶다. KOWINNER 모임과 KOWIN DC 모임이 없었더라면 이번 행사가 있다는 것과 한국방문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갖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이번 통영 방문을 통해 나의 사회경력과 나의 생활을 미디어 기자들과의한국국민들과 나누게 되었다. 또한 이번 기회로 여러 나라 곳곳에 살고 있는 KOWIN 회원들과의 만남으로 새로운 우정을 나눌 수 있었고, 우리의 자랑스런 한국에 대하여 배우고 탐구하며 단지 이벤트가 아닌 새로운 비전을 배우게 되었다. 이 행사는 단지 모임을 갖는 행사가 아니고 새롭고 더 좋은 교류를 통해 회원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문이 열려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회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고, 회원에게 그리고 새로 가입한 회원들에게 기회가 되면 꼭 참석을 권유하고 싶다.

제 6회 KOWIN DC 리더쉽 세미나

2015년 11월 14일

박미옥 작성





제 6 회 리더쉽 세미나가 11 월 14 일 알렉산드리아 올드타운에 위치한 엠버시 스위트 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특별히 한국 여성가족부의 후원으로 열리게 된 이번 세미나는 신수경 회장의 개회사와 재미 한국 대사관 강도호 총영사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이번 세미나의 기조연설자로 초빙된 안젤라 오 변호사는 "Self-awareness, self-care beyond the balancing game"이라는 주제를 통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우리의 결정과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며 이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자신과 능력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오 변호사의 기조 연설에 이어 잉 밉 투 (Ying Ming Tu) 화가의 작품들이 소개되었는데 많은 참석자들은 작품을 대하는 그의 철학 및 작품에 담긴 인간애를 통해 큰 감동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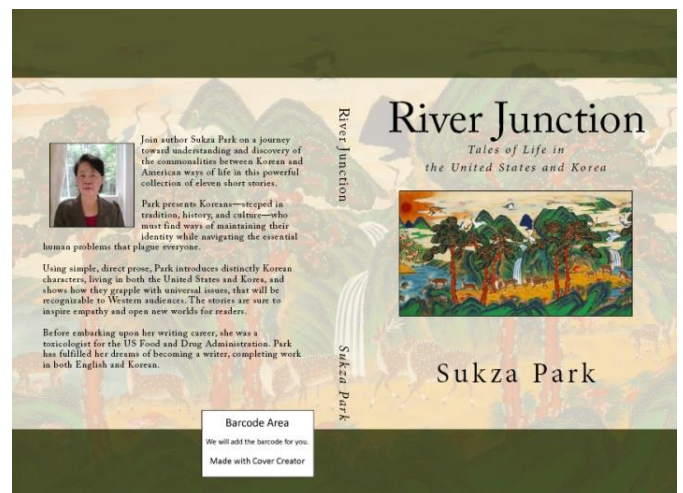
전과 달리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전에는 시니어 멘토가 리드하는 멘토링 세션과 오후에는 주니어 멘토가 리드하는 멘토링 세션, 이렇게 두 번의 세션을 나누어 가짐으로 각 전문 분야에서 차세대들에게 세대간의 다른 견해와 경험을 폭넓게 전해줄 수 있었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성공해 두각을 나타내신 분들이 멘토와 모더레이터로 활약해 주었으며 세미나 참가자들은 10 개의 그룹 ((1) 교육, (2) 국제기구, (3) 법률, (4) 언론, (5) 의료 / 보건, (6) 과학 / 정보 과학, (7) 예술, (8) 비즈니스, (9) 정부 / 정치, (10) 비정부 단체) 중에서 관심 직업 분야를 두가지 선택해 그룹 멘토와 멘티들과 상담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 프로그램으로는 이번 세미나 공동위원장인 김지수 회원이 소그룹 토의 요약 발표 진행을 맡았다.

이번 6 회 KOWIN DC 리더쉽 세미나에서는 남명호, 김지수 공동위원장이 행사 준비로 많은 수고를 했으며 김소연 펠로우를 비롯해 여러 재능있는 회원들 (쥬다이 알로웨이, 강윤경, 이정실, 남경아, 박미옥, 송경민)이 세미나 준비 위원회 멤버로 활약해 주었다.

회원뉴스

박숙자

박숙자씨의 영문 단편소설집 <River Junction>이 Amazon.com 을 통해 11 월에 출판되었다.



책의 제목은 두강이 만나 하나가 되어 흘러가는 "두물머리"를 뜻한다. 미국과 한국에서 살아가는 각각 다른 한국인의 인생행로가 이 열한편의 단편 속에 담겨있다.

한국적인 문화와 역사, 전통에 젖은 주인공들이 인간이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고민과 불가항력적으로 당하는 고난—크게는 한국전쟁, 개인적으로는 유전적인 문제 등—에 도전하고 순응하는 용기를 이 소설집에서 볼 수 있다.

간결하고 평이한 문장으로 부모로서, 자식으로서, 또 배우자로서 겪어야 하는 인간적인 이슈를 그렸다. 이 소설집은 영어권 독자에게 한국인을 다시 인식하며 생각의 폭을 넓히고 시야를 넓혀 줄 것이다. 한국과 서구 문화의 차이점을 이해하며 서로의 공통점을 찾고 이해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 작가의 뜻이라고 한다.

저자 박숙자씨는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독성학자로 근무했으며 의약품의 안전성을 심사했다. 이제 드디어 전업작자의 꿈을 이루어 이 영어 소설집은 한국어로도 번역했으며 제목은 <사랑의 빛깔>이다. 이 책의 출판을 위해 현재 한국의 출판사를 물색하고 있다.



신수경
한국여행



KOWIN 통영 회의가 끝난 후 나는 주로 서울에서 지내면서 시골의 여러 도시들을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방문했다. 장성학교 설립 20주년 테이프 커팅 기념식이 전라남도 장성에서 개최되었는데 이 도시는 노란색 꽃으로 뒤 덮이다시피 하여 아름다웠다. 장성학교 설립 20주년을 맞이하여 테이프 커팅 후 열린 세미나에선 이 도시 출신인 전 김항식 총리가 기조 연설을 하였다. 마침 9월중순에 있었던 조카 결혼식 참석으로 집안식구들이 많이 서울에 모였던 차라 함께 강원도 여행을 떠났다. 강원도 지방 여러 도시를 관광하고 미래 2018년 겨울 올림픽 도시인 평창에도 가 보았다. 약 20년 전에 내가 마지막 방문했던 강원도 지역은 그간 눈부시게 발전되어 있었다.

서울에 있는 동안 대학들과 여러 포럼장에서 국제 비즈니스 에티켓, 프로토콜 및 소프트 스킬의 주제에 대한 특강을 했다. 가을은 여러가지 컨퍼런스와 다양한 포럼 및 회의가 많은 바쁜 계절이라 여러 이벤트에 초대 받았다. 그랜드 엠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세계지식포럼 우먼리더스포럼에선 김희정 여성가족부장관과 같은 테이블에 앉는 영예를 가졌는데 김장관님은 내가 KOWIN DC 지부에서 왔다고 반가워 했다.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서 개최한 포럼에서는 많은 창의적인 주제를 다뤘으며 인간 개발 연구원 (KDI)에선 "시진핑의 꿈: 실크로드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 의 효과"에 대한 강의를 인상적이었다. 옛 시골 도시의 재발견과 여러 가지로 가치 있는 경험과 보람된 두 달의 한국 방문이었다.

Suzanne Kim Doud Galli, MD, PhD, FACS



수잔 김 도우드 갈리 MD, PhD, FACS 는 올 여름 KOWIN DC 를 대표하여 13 명의 한미 커뮤니티 리더들과 함께 휴전 기념일에 한국전쟁 기념비에서 헌화식에 참석하였다. 이 행사는 KOWIN DC 멤버인 하나 김이 준비하였으며 고위 공직자, 참전용사 및 한국 무용가들이 참석하였다.



또한 이번 11월 1회 한인의대생협회 컨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참가하여 자선사업을 하는 것이 재미동포로서의 정체성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연설하였다. 같은 주말, 수잔씨는 KOWIN DC 전 회장 남명호씨와 Washington Coalition for Comfort Women 회장 이정실씨와 함께 2012 KOWIN DC 리어쉽 세미나에 기조연설자로 초빙되었던 연아 마틴 캐나다 상원의원을 맞이하고 페어팩스에 있는 위안부기념비에 방문하였다. 연아 마틴 상원의원은 그녀가 다루고 있는 많은 사회 이슈들 중 위안부문제에 대해 국가수준으로 우선시하고 있다.



김(오)혜경



올 7월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열린 한미과학기술기업회의 (UKC 2015)에 김혜경씨가 여성포럼에 연설자로 초청되었다. 여성 포럼은 한미과학기술여성단체와 한국 여성 과학기술 단체 총연합회에서 후원하였다. UKC2015의 주제는 '서번트의 마음으로 탁월함을

추구한다'였고 미세스 김은 'IT 분야에서 서번트 지도자'란 주제로 연설하였다. UKC는 재미과학기술자협회에서 매년 여는 큰 국제회의로 한국과 미국에서 약 1200명이 참석한다.

현금 기부

"회원분들의 정성어린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Sung Cha Hong Cha (홍성자) \$100

Christine Choi (김광자) \$100

Sujin Shin Hur (신수진) \$100

Sami Lauri (함은선) \$100

Jung Hee (JH) Lee (이정희) \$100